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5, pp.193-199, September 30, 2022.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193
JCCT 2022-9-23

노인의 인적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Human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임안나*

Ahn Na, Lim*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인적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8차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자는 1,987명이었다.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세대구성 형태, 배우자유무, 운동 형태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활만족도와 건강상태는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월평균소득과 교육수준은 가장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부부세대의 가족형태인 경우에, 건강할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규칙적인 운동을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요어 : 노인, 인적자본, 생활만족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human capital of the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Data from the 8th KReIS additional survey were used for the study subjects, and the number of subjects was 1987.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0.0. As a result, gender, age, education level, economic activity status, generational composition, spouse presence, and exercise typ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health status showed the highest positive (+) correlation, and monthly average income and education level showed the highest negative (-) correlation. As for human capital that affects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in women than men, employed rather than unemployed, married generations, health, average monthly income, and regular exercise.

Key words : Old man, Human Capital, Life Satisfaction, KReIS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고령화사회를 지나 2018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1], 2025년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체계의 미비를 야기했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노인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노인을 자원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노인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수명연장보다는 길어진 노후를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한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노인이 갖고 있는 여건을 긍정적으로

*정회원, 광운대학교 글로컬교육센터 부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7월 28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5일

Received: July 28, 2022 / Revised: August 22, 2022
Accepted: September 5, 2022
*Corresponding Author: lan22@kw.ac.kr
Dept. of Glocal Education Center, KwangWoon Univ, Korea

살펴보고, 노인을 자원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할 때 좀 더 의미있고 만족스러운 노년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가진 여건을 인적자본으로 인식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자본은 '장사나 사업 따위의 기본이 되는 돈'이며, 경제학에서는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제외한 생산 수단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2]. 자본의 의미를 확장해 보면 미래에 예견되는 이익을 위한 자원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3]으로 볼 수 있다. 확장된 개념에 의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요소도 인적자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자본은 측정하기 힘든 요인들이 포함되지만 자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치를 향상시켜 보다 나은 지위와 보상을 얻게 되는 매개가 된다[4]. 이처럼 인적자본은 개인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특히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으로 기능이 약화되어 그 역할이 감소한 노인들에게는 인적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생활에서 얻는 다양한 즐거움, 삶의 의미와 책임감, 성취감을 느끼며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다[5] 또, 개인의 기대와 충족도의 일치에서 오는 주관적·개인적 현상으로,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과 태도이다[6]. 생활만족도는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등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노인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원을 통해 각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여러 활동에 참가하여 개인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행동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7]. [8]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3.16으로 나타났고, [9]의 연구에서는 3.36으로 나타나 보통 보다 많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년기는 신체능력의 저하, 사회적 관계의 감소 등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많다[10].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으로는 우선 성별이 있다.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11], 차이가 없다[8][12]는 연구가 혼재되어 있다. 성별과 생활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성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13][11]. 일반적으로 노인의 기준을 역연령에 의해 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연령에 따라 생활경험과 사회적 관계, 신체적 조건이 달라서 생활만족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6]. 그러나 조선족과 한족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14]에 의하면 연령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1]. 이와 다르게 [15]은 연령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나 [12]은 연령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령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으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6][11]. 교육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4]도 대졸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14][11]. 이와는 다르게 [13]은 교육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제활동 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일관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은퇴가 노년기의 특징이고 경제활동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 상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2]. 경제활동 상태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었으나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과 다르게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5]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경제활동 상태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구성 형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1인 노인가구와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성인자녀와의 유대감이나 도움이 생활만족도에 많은 영향이 있는 편이다[16]. 여성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남성 노인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더 높아졌다[16]. 노년기에는 은퇴와 더불어 배우자의 상실이 가장 큰 생활사건이 되는 시기이다. 노년기의 가족생활주기에서 부부관계가 가장 중심적이고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6]. 배우자의 상실은 남은 사람에게 절망과 고득감을 느끼게 하여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다[13]. 종교활동은 노인의 고독감과 고립감을 완화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잘 대면하도록 하고 생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종교활동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12][16]. 노인에게 있어 거주지는 주거, 편의시설 등의 물리적 특성과 주민과의 유대감과 같은 사회적 특성, 그리고 노인이 지역사회에 가지는 소속감, 애착 등의 심리적 특성을 포함한다[18]. 따라서 거주지역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대도시와 비교하여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15]. 소득은 노년기에 경제적 안정을 주고 기본적인 욕구충족 뿐만 아니라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16]. 따라서 소득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6]. 자산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고[15], [14][13]도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건강상태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건강한 노인이 그렇지 못한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6].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고[19][13][17]. 건강유지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5][14]. 그러므로 만성질환 등의 부정적인 측면의 건강요인들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가장 크게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4].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에 따른 건강유지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규칙적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맞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경우 생활에 활력을 주고 건강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20].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21].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인적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부가조사(202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후의 소득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2005년부터 격년으로 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가조사는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8차 부가조사 시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노인으로 하였으며 대상자는 1,987명이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적자원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t검정과 ANOVA분석을 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인적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2. 측정 도구

1) 종속변수

생활만족도는 1. 매우불만족-5. 매우만족까지의 서열척도를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연령은 65-69세는 “1”, 70-74세는 “0”으로 더미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을, 세대구성 형태는 1세대이상을, 거주지역은 도를. 운동형태는 거의하지않음을 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여 더미처리 하였다. 종교 유무, 배우자 유무는 있음은 “1”, 없음은 “0”으로, 더미코딩하였다.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은 ‘1’, 비취업은 ‘0’으로 더미코딩하였다. 건강상태는 1. 매우좋지않음 - 5. 매우좋음의 서열척도를 사용하였고 월평균 소득은 비율변수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총 1,987명이었다. 성별은 여성 1,165명(58.6%), 남성 822명(41.4%)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은 70-74세 1,009명(50.8%), 65-69세 978명(49.2%)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1,238명(62.3%)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582명(29.3%), 대졸이상은 164명(8.3%)이었다. 경제활동상태는 비취업자 1,191명(59.9%), 취업자 796명(40.1%)이었고, 세대구성 형태는 부부가구 1,123명(56.5%), 1인가구 372명(18.7%), 기타가구 492명(24.8%)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는 있음 1,054명(53.1%)로 많았고 없음 933명(47.0%)였다. 거주지역은 도 1,085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시 566명(28.5%), 서울 336명(16.9%)의 순서로 나타났다. 배우자있음 1,501명(75.5%)으로 많았고 배우자없음 486명(24.5%)이였다. 건강상태는 좋음 816명(41.1%)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731명(36.8%), 좋지않음 363명(18.3%), 매우좋지않음 49명(2.5%), 매우좋음 28명(1.4%)명 순서로 나타났다. 운동형태는 거의하지않음 860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규칙적 830명(41.8%), 불규칙적 297명(14.9%)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인적자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노인의 인적자본이 생활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t값이 2.374, p값은 .018로 나타나 유의하였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t값이 3.296, p값은 .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은 F값이 23.706, p값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따라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었고 교육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경제활동 상태는 t값이 5.789, p값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따라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세대형태는 F값이 18.262, p값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세대구성 형태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종교유무는 t값이 .806, p값은 .42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종교유무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없었다. 거주지역은 F값이 .795, p값은 .45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채택되었으며 거주지역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없었다 배우자유무는 t값이 6.835, p값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따라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었고, 배우자유무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는 F값이 243.141,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유의하여 대립가설이 채택되었으며 건강상태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운동형태는 F값이 32.969, p값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었으며 운동형태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표 1. 인적자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human capital

		N	Mean	SD	t/F(p)
Sex	Male	822	3.45	.624	2.374*
	Female	1165	3.38	.637	
Age	65-69	978	3.46	.640	3.296 ***
	70-74	1009	3.36	.621	
Education	Middle School	1238	.625	.018	23.706 ***
	High School	582	.631	.026	
	College+	164	.604	.047	
Economic Acivity	Employment	796	3.50	.557	5.789 ***
	Non-employment	1191	3.34	.670	
Generation	Single person	372	3.24	.664	18.262 ***
	Married couple	1123	3.47	.617	
	Etc.	492	3.40	.619	
Religion	Yes	1054	3.42	.624	.806
	No	933	3.40	.641	
Residence	Seoul	336	3.44	.680	.795
	Metropolitan	566	3.39	.647	
	Do	1085	3.41	.609	
Spouse	Yes	1501	3.46	.616	6.835*
	No	486	3.23	.651	
Health	Not very good	49	2.20	.763	243.141 ***
	Not good	363	2.98	.587	
	Usually	731	3.28	.519	
	Good	816	3.76	.467	
	Very good	28	4.07	.466	
Exercise	Regular	830	3.51	.568	32.969 ***
	Irregular	297	3.50	.552	
	Don't	860	3.28	.691	

$p^{*}<0.1$, $p^{**}<0.05$, $p^{***}<0.01$

3. 인적자본과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인적자본과 생활만족도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 생활만족도와 건강상태는 r=.565, p=.000으로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표 2. 인적자본과 생활만족도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human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Sex	Age	Education	Economic Acivity	Generation	Religion	Residence	Spouse	Health	Income	Exercise	Life satisfaction
Sex												
Age	-.016	1										
Education	-.153***	-.016	1									
Economic Acivity	.277***	.111***	.043	1								
Generation	-.013	-.053*	.002	.029	1							
Religion	-.156***	-.010	-.055*	-.056*	-.009	1						
Residence	.002	.028	-.060**	-.174***	-.105***	.038	1					
Spouse	.312***	.082***	-.102***	.090***	.029	-.031	.004	1				
Health	.124***	.115**	-.098***	.165***	-.021	.004	.021	.176***	1			
Income	.159***	.100***	-.222***	.089***	-.364***	.016	.095**	.224***	.204***	1		
Exercise	.049*	.037	-.081***	-.071***	.024	.045*	.117**	.101***	.198***	.057*	1	
Life satisfaction	.053*	.074***	-.090***	.124***	.005	.018	.002	.156***	.565***	.210***	.179***	1

$p^{*}<0.1$, $p^{**}<0.05$, $p^{***}<0.01$

표 3. 인적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3. Effect of Human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p)	*TOL*	*VIF*
	B	SE	β			
(Constant)	1.851	.129		14.371		
Sex	-.081	.027	-.063	-3.004*	.754	1.326
Age	-.009	.024	-.007	-.358	.945	1.058
Education-Middle School	-.050	.046	-.038	-1.083	.268	3.734
Education-High School	-.022	.047	-.016	-.483	.297	3.363
Economic Acivity	.058	.026	.045	2.252*	.835	1.197
Generation-Single person	.076	.051	.047	1.497	.341	2.931
Generation-Married couple	.071	.033	.056	2.166*	.507	1.973
Religion	.005	.024	.004	.222	.958	1.044
Residence-Seoul	-.032	.033	-.019	-.971	.849	1.178
거주지역-Metropolitan	-.019	.027	-.013	-.683	.868	1.152
Spouse	.060	.050	.041	1.197	.289	3.457
Health	.391	.015	.519	26.419***	.864	1.157
Income	4.267	.000	.110	5.126***	.725	1.379
Exercise	Regular	.026	.074	3.617***	.805	1.243
Irregular	.068	.035	.039	1.934	.840	1.190
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F(p)	64.133***					
adj.R^2	.337					
Durbin-Watson	1.602					

$p^{*}<0.1$, $p^{**}<0.05$, $p^{***}<0.01$

Reference group: 성별*여성, 연령*70-74세, 교육수준*대졸+, 경제활동 상태*비취업자, 세대구성*기타가구, 종교유무*없음, 거주지역*도, 배우자유무*없음, 운동형태*거의하지않음

나타냈고 운동형태와 종교는 r=.045, p=.044으로 가장 낮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월평균소득과 교육수준은 r=.222, p=.000으로 가장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종교와 교육수준은 r=-.055, p=.015로 가장 낮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인적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본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입력방법은 입력(Enter)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F=64.133(p<.000)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adj.R^2값은 .337로 33.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분석결과, 성별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의하면 여성(1.851)이 남성(1.77)보다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13][11]의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다. 연령과 교육수준은 유의확률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제활동 상태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의하면 취업(1.909) 상태가 비취업(1.851)보다 생활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세대구성 형태는 부부세대인 경우에만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16]의 결과와 같다. 1인가구와 기타가구의 유의확률은 .05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교유무와 거주지역, 배우자유무는 유의확률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와 월평균 소득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운동형태는 규칙적인 경우에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비규칙적인 경우와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의확률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인적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t검정과 ANOVA 분석을 하였고, 변수 간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세대구성 형태, 배우자유무, 건강상태, 운동형태는 생활만족도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생활만족도는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세대구성 형태, 종교 유무,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 운동형태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중에서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는 가장 큰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교육수준과 종교유무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인적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33.7%였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으로는 성별, 경제활동 상태, 세대구성 형태,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 운동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부부세대의 가족형태인 경우에, 건강할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규칙적인 운동을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후의 삶의 질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남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노인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야 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의 특성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1] A. N. Lim, “A Comparative Study of Men and Women on the Preparation of Retirement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Vol. 10 No. 3, pp. 113-121, 2021. DOI: 10.7236/IJASC.2021.10.3.113

[2] NAVER dictionary

[3] Bourdieu, P.,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86.

[4] Y. A. Lee, “The Effect on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Vol. 12, No. 1, pp. 177-202, 2016. DOI: 10.15790/cope.2016.12.1.177

[5] Neugarten, B., Havighurst, R. & Tobin, S.,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 16, pp. 134-143, 1979.
[6] I. H. Lim, "The Effects of Elderly Cultur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NATR)*, Vol. 15, No. 1, pp. 129-164, 2019. DOI: 10.35173/NATR.15.1.7
[7] S. B. Kim, "Direction of Social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older's globa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47, pp. 95-112, 2010.
[8] S. A. Ahn, E. Y. Jung & J. H. Kong, "The Relationship among Life-satisfaction, Self-neglect,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6, No. 3, pp. 253-260, 2020. DOI: 10.17703/JCCT.2020.6.3.253
[9] Y. S. Yoo, "The Effects of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on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JKEIA)*, Vol. 15, No. 2, pp. 213-222, 2021. DOI: 10.21184/jkeia.2021.2.15.2.213
[10]Y. T. Kim & N. Lee,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tatu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Vol. 5, No. 1, pp. 1-19, 2019. DOI: 10.31748/KSEG.2019.5.1.1
[11]M. K. Lee, Y. S. Choi & E. S. Nam,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Rural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Vol. 29, No. 2, pp. 73-90, 2017.
[12]I. S. Jang & D. N. Oh,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at Home", *The J. of 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s Hoseo Univ.*, Vol. 22, pp. 87-97, 2014.
[13]Y. M. Lee & J. Y. Kang,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 42, pp. 111-130, 2022. DOI: 10.22589/kaocm.2022.42.111
[14]H. S. An, "The Research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Chinese Korean elderly Ethnic Groups: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Korean and Han Nationality", *CENTER FOR GLOBAL DIASPORA STUDIES*, Vol. 13, No. 2, pp. 135-165, 2019.
[15]H. C. Kwon & J. H. Kim, "The Effects of National Pension Service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1, No. 6, pp. 1961-1971, 2020. DOI: 10.22143/HSS21.11.6.138
[16]C. H. Lim,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Lifestyle of Elderly People Who Have No Spouse and the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Vol. 11, No. 2, pp. 43-65, 2007.
[17]S. H. Yoo, Effects of Number of Children and Coresidence with Married Adult Children on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Koreans: Analysis by Gender and Marital Statu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17, No. 2, pp. 37-50, 1997.
[18]H. M. Kim, "Regarding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9, No. 0, pp. 117-145, 2016.
[19]D. H. Yun, "Convergent Effects of Subjective Health Statu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omen Living Alone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9, pp. 345-354, 2017.
[20]Dishman R. K. "Exercise Adherence Ⅱ", Human Kinetics Publisher, 1988.
[21]Y. J, Jeong, J. G. Park & K. W. Yu, "The Effects of Dance Sports Program on Self Efficacy, Life satisfaction, Bony metabolism in the Elderly Wome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Vol. 19, No. 5, pp. 1-21, 2005.
[22]C. O. Jang, "Analysis of the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Job Participation on Psychological Adaptation of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10, No. 2, pp. 213-219, 2022. DOI: 10.17703/IJACT.2022.10.2.213